
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
배포일자		2023년 3월 9일(목) 총 2매		
담당 부서	자치행정과	담 당 자	• 자치행정팀장 조성훈 ☎ 440-2421 • 담당자 신미정 ☎ 440-2424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 시민원로, 재외동포청 · APEC 정상회의 인천유치 전폭 지지
- 시민원로 50인, 9일 정례회의서 인천 유치에 강력 의지 드러내 -

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(의장 심정구) 위원 50인이 재외동포청 인천
 설립과 제32차 아시아·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정상회의 인천 개최를
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.

시민원로회의는 9일 정례회 행사에서 재외동포청과 2025년 APEC 정
 상회의 인천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지지선언식을 갖고
 이들 유치 전략에 대한 인천시 추진상황과 관련한 자문의 시간을 가
 졌다.

심정구 의장은 “인천은 전국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외국
 인 주택단지, 글로벌캠퍼스 등을 운영해 재외동포의 사업활동과 정착
 을 위한 최적의 여건이 마련돼 있다”면서, “반드시 인천에서 재외
 동포청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이 날 행사에서 유 시장은 “대한민국 최초 근대 이민의 출발지이며,
 인천공항과 항만이 있어 재외동포의 방문이 용이해 재외동포들이 가

장 선호하는 인천이 재외동포청 신설의 최적지”라고 강조했다.

또한, 유 시장은 “APEC 정상회의가 열리면 해외 경제교류 활성화로
 2조 4000억 원 상당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.”면서 “우수한 광역교
 통망과 국제회의 인프라를 갖춘 인천에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유
 치할 수 있도록 시민원로회를 비롯한 인천시민의 적극 협조”를 당부
 했다.



※ 그 밖에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'인천시 인터넷방송'(<http://tv.incheon.go.kr/>)
 '포토인천'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